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오는 8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 사회복지인 '화합의 한마당' 열린다

제주 사회복지인, 자원봉사자, 도민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화합과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복지, 도민의 삶에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오는 8일 10시 30분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 행사에는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내 17개 직능별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생활(이용)인, 자원봉사자, 도민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1부 기념식 행사는 비영리 재능기부단체 ‘더

희망제주’가 준비한 다채로운 식전 축하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의 기념사, 주요 인사의 축하,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임 사회복지시설장과 근무자가 무대에 올라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윤리선언문은 사회복지 이용자의 인권옹호, 인간의 고귀한 가치 구현,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등의 내용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후 1시부터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도민과 사회복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장, 사회복지가

족 단체줄넘기 대회가 열린다.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사회복지종사자, 대학생, 봉사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석한다. 대회는 12명이 한 조가 돼 경기에 참여하며, 총 20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 9월 7일로 지정됐으며, 매해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은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해져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 지난 2015년도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직능단체장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 사회보장기본법률 개정안 발의 제주 위성곤 의원, “26조, 지자체 자치권 침해 소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고자 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변경 사업은 기존제도와 연계, 사회보장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만큼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1496개(예산 약 1조원 가량)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당진 등에서 실시한 장수수당 등이 불가·폐지 결정된 대표사례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수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됐다. 국회 위성곤(더불어민주

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장성군), 윤소하(정의당·비례) 의원도 지난 16일과 7월 18일 같은 취지의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은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또한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정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에 관해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면소개

종합	2-3면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취임 인터뷰	
사회복지소식	4-5면
아동 눈높이 맞춘 초록우산 인성함양 교육	
기획	7면
시설탐방(80) - 효사랑 노인전문요양원	
전면광고	8면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6 사회복지가족 '단체줄넘기' 대회	

JDCar 를 대여해 드립니다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 드리는 복지용 특장차량 대여서비스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통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JDC 지원으로 '복지용 특장차량(JDCar)'을 대여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취임 인터뷰

“다양한 계층 목소리 수렴... ‘공존의 문화’ 정착 시킬 것”

① 우선 취임소감을 부탁드린다면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질은 결코 경제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급격한 인구와 차량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도심 주차난 해결방안 공론화,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로 지자체 복지사업의 협의·

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반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문제는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 패널티 적용, 시·도 평가 반영 등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등에게

발송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았다.

③ 제주지역 복지에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제주의 복지에 예산은 전국 31.65%(2014년 기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도 자체예산과 비교했을 때, 원지사취임 후 복지에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즉, 2014년 20.98%를 기점으로 2015년 18.88%, 2016년 17.89%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 사회복지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더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김용범 위원장의 인터뷰 모습.

라 본다.

④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다면

사회복지시설 분포를 보면, 총 290개소 가운데 제주시가 207개소(71.4%), 서귀포시가 83개소(28.6%)로 상당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가 의회 제안으로 2012년 제정됐다. 더불어 의회에서는 복지 균형 해

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 결과, 서부지역(대정)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노인복지관 신축, 법환동 육아종합복지센터 신축, 서귀포 시장애인복지관 서부 분관 설치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루 수렴해, 복지 불균형 문제를 줄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복지현장 활동 경험 나누는 종사자 인권 교육 실시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7월 지하교육실에서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의 홍진수 인권교육 강사의 강의를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인권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인권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 복지현장에서 활



동했던 경험을 나누며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과 실천에 대한 토론, 시설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서로 설명하며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맞았다.

제10회 전도 장애인 IT 경진대회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과 KT 제주고객본부(본부장 오상곤)가 제 10회 KT배 전도 장애인 IT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IT경진대회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실무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 겪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대회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예선대회는 오는 7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jejuhab.or.kr)에서 실시하며, 본선 대회는 오는 23일 KT제주고객본부(삼성초등학교 후문)에서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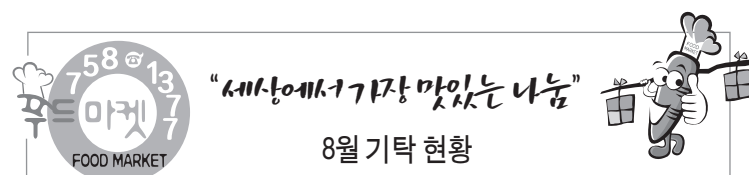
대회 시험문제는 시각(전맹, 약시)의 경우 한글문서작성과 정보검색이며, 나머지 타 유형의 경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이다.

예선 접수는 오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



jejuha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회시상은 4개 부문(지체·뇌병변, 발달·정신, 시각, 청각)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개인기탁자 노원상남=쌀등 188kg ▲금강수산유통=수산물 36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271kg ▲김치원=김치 20kg ▲꽃비나리는뜨락=떡 428개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262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4,201개 ▲서문식품=두부 431모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 859개 ▲암암영농조합법인=빵 53봉 ▲올레식품=오메기떡 7,700개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091개 ▲이든이네=건멸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65봉 ▲제주도청 존샘봉사회=고추장 100kg ▲제주보리촌=보리빵 700개 ▲제주한미모로타리클럽=라면등 522개 ▲갯어클락=식빵 4봉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 15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주방세제 63kg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353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42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230,000	230,000
복지사업후원	955,000	894,680
푸드마켓후원	2,605,000	603,68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인: 고경운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현장을 뛰는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탄생

“제주지역 사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례관리 양성과정의 최종 단계인 슈퍼바이저 과정이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서귀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됐다. 총 12명의 교육생은 3년 동안 총 70시간의 과정을 거쳐, 현장을 뛰는 사례관리 전문가로 탄생했다.

제주 지역은 타 도시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례관리 전문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지역이다. 이를 감안, 한국사례관리학회(학회장 함철호)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2013년 제주에서 최초로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대상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했다.(사진)

이 과정은 실무자 기초과



▲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석한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심화과정, 슈퍼바이저 과정, 공개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됐으며, 3년간 총 581명의 교육생은 기초과정부터 슈퍼바이저과정, 공동컨퍼런스 등의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번 슈퍼바이저 과정은 전문 슈퍼바이저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사례관리 학회 10여명의 교수들이 과정에 참여해 교육생

들과 현장에서 가진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현순 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은 “수료생들이 사례관리 현장에서 활발한 슈퍼비전 활동을 전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수료생 간의 자조모임을 활성화 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어시스터’ 연수 열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어시스터(Assisitor) 양성과정 연수’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의 주최로 8월 18일부터 3일간 열렸다.(사진)

이번 교육은 사회취약계층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시설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어시스터(조력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및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알아보는 교육과정, 참여자 간 관계형성을 위한 연극놀이, 사회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 예술을 통한 마음의 치유 등 사회복지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



육 분야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양성과정을 준비한 고희송 문화예술교육팀장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예술교육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복지시설 이용자가 더욱 체계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총 7회의 연수과정을 열었으며, 약 11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느영나영문화예술단, 전국 자원봉사대축제 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느영나영문화예술단’ (단장 김영중)이 지난 7월 28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3회 전국 자원봉사대축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사진)

우수상을 수상한 ‘느영나영문화예술단’은 2010년부터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길거리, 축제장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펼치는



봉사단체다.

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찾아 민요, 국악, 가요, 색소폰 연주, 스포츠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중 단장은 “앞으로도 단원 모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한미모로타리클럽, 푸드마켓에 50만원 상당 물품 기탁

제주한미모로타리클럽(회장 오영희)은 지난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화장지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사진)

오영희 회장은 “제주사랑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이렇게 뜻깊은 식품기부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며, 회원들과 함께 이런 기부활동 자주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받은 기부물품

은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시작

도교육청 지원, 도내 16개 학급 500명 대상

도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이 이번 달부터 시작 오는 12월 까지 진행된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의 지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동기에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회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

특히 이 교육은 중·고등학교 진학 이후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

기 위한 선행과정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교육은 사회복지를 비롯 장애·노인·다문화·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강의가 진행되며,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 참여자 중심 토론, 도구를 활용한 장애인·노인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08년도부터 총 108개 학교, 약 1만2천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 눈높이 맞춘 ‘초록우산 인성함양 교육’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2016년 상반기 동안 하귀초등학교 100명, 이도초등학교 290명, 삼성초등학교 160명 등, 총 550여명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인성교육’을 진행했다.(사진)

초록우산 인성교육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참여형 활동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제를 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교육에 참가한 전주희 어린이는 “교육을 받으

며,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존중’이었다”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존중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섬김의집, 장학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섬김의집 표순호 대표이사는 동화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제주중학교에서 추천받은 모범 청소년 13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장학금은 제주순복음복지관에서 지난 6월 실시한 ‘제12회 여기서 만나 장 바자회’의 수익금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표 대표이사는 “장학금 마련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유관기관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 장학금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혼디 모다들엉’ 여름 물놀이

약천사 자광원(원장 권오중)은 지난달 5일 롯데호텔 제주 및 서귀포경찰서와 함께 ‘혼디 모다들엉 happy swimming’ 여름 물놀이를 다녀왔다.

서귀포시 동홍동 산지물물놀이장에서 진행된 이번 물놀이에는 자광원 가족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물놀이로 자광원 가족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답답했던 마음과 무더위를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었다.



“물과 갯벌 체험하며 생명을 느껴요”

제주YMCA(사무총장 김태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첫 여름을 맞아 장흥 물축제 및 생명이 살아있는 갯벌체험을 지난달 1일부터 2박3일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회원 총 45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소중히 가꾸고자 하는 의미에서 물과 갯벌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라리오 뮤지엄 ‘일일문화체험’

취약계층아동시설인 제주몽생이그룹홈(시설장 윤문희)과 제주소나이그룹홈(대표 김완숙)의 입소 아동들은 지난달 10일 제주 아라리오 뮤지엄의 초대를 받아 제주 시내 탐동과 동문로타리에 위치한 전시관을 체험했다.

아라리오 뮤지엄은 문화, 예술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이 적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미술관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고, 뮤지엄 내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도 제공했다.

장애학생 계절학교 성황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양예홍)이 주관한 2016학년도 장애학생 계절학 ‘The 큰 세상으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계절학교는 장애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해리티지 공예,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여름철 안전교육, 성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도 함께 공유하



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밑거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큰영노인자원봉사클럽 재능기부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 남원분회 소속 큰영노인자원봉사클럽(대표 고병주)은 지난 5월부터 매달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을 방문해 짚공예만들기 교육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는 연합회의 ‘노인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옛 전통 짚공예만들기’ 사업이 대한노인회 ‘지역맞춤형 노인자원봉사활동 특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



른 것이다.

평균 75세 이상 봉사자 13명으로 구성된 큰영노인자원봉사클럽은 노인요양시설·장애인시설 방문, 마을공동체 봉사 등을 전개해 왔다.

‘도배로 봉사단’ 무료도배 봉사 진행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도배로봉사단’은 지난달 13일 제주시 아라동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찾아 무료 도배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각기병 등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이사를 못하고 있는 사연을 은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터 접수받아 진행됐다.

봉사단은 뜨거운 폭염에



도 어르신의 집을 찾아 도배, 장판설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배로봉사단’은 올해 5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도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아름합창단, 음악재능 기부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의 봉아름합창단이 지난달 8일 충북 음성꽃동네를 방문해 음악재능 기부 활동에 나섰다.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제주 한화호텔&리조트의 후원을 받고 대기고등학교와 협력해 <울랄라노래는즐거워> 음악프로그램 진행하며 화음을 맞춰 왔다.



봉아름합창단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를 방문해 음악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또다른 이웃에게 나누는 미덕을 배웠다.

● 소/식/마/당

‘함께라서 더 즐거운’ 문화체험



제주한빛지역아동센터(센터장 주종훈)는 지난달 27일 한국 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후원으로 ‘신나는 여름방학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함께라서 더 즐거운 우리들의 여름이야기’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체험으로 한빛지역아동센터 고학년 아동 20명은 영화관람, 제주워터파크 물놀이, 외식문화체험 등에 참여해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다.

신나는 여름방학 ‘1박2일 캠프’



보목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미옥)는 한국 마사회제주지역본부 후원으로 ‘2016년 신나는 여름방학 만들기’ 캠프를 지난달 11일부터 1박 2일로 실시했다.

캠프의 첫째 날 아동들은 제주지역본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테마파크 공연을 관람한 후 카트체험과 승마체험을 통해 신나는 여름을 즐겼으며, 둘째 날은 금호리조트 아쿠아리움에서 물놀이를 진행했다.

여름방학 맞이 합창캠프



온새미로(우리동네, 늘푸른, 봉아름, 용담, 이호) 연합 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난달 11일부터 1박2일간 금능에 위치한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합창 캠프를 마쳤다.

합창단원, 센터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지휘자(김은희), 반주자(고주희) 등 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합창집중훈련과 레크레이션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주청소년들 서울 캠프 다녀오다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와 제주시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26명과 인솔자 4명은 지난 8월 5일부터 2박 3일 동안 서울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삼도2동에 위치한 건영공업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서울 일대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제주와 다른 점들을 느껴봤으며, 일정 중 일부분을 직접 계획해 실행하는 기회도 접했다.

‘다(多)함께 만들 장’ 프리마켓 열어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지난달 19일 한림민속오일장에서 회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多)함께 만들 장’ 2차 프리마켓을 열었다.

매월 진행되는 ‘다(多)함께 만들 장’ 프리마켓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프리마켓을 통해 판매하며 한림민속오일장의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구좌합창단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구좌합창단(단무장 김양여)은 지난달 23일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 다목적실에서 이용자 및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좌합창단과 함께하는 음악여행’을 개최했다.

구좌합창단과 CBS 소년소녀합창단원이 함께 연 이날 행사에는 이용자와 직원들을 위해 ‘별’과 ‘꽃 구름속에’,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 등 다양한 합창이 선보였다.

장애·비장애 청소년 함께 벽화활동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덕수)에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무광타일에 그림을 그리는 ‘타일벽화 실기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11명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동홍·비전 지역아동센터에 벽화를 설치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프리마켓 참여 통한 모금·홍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센터 내 대학생 봉사단 ‘대범한 서포터즈’와 함께 도내 프리마켓에 참여해 모금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가정위탁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손수 제작한 ‘나눔팔찌’를 판매해 30만원 이상을 모금했다. 봉사단은 앞으로도 캠페인을 지속해 위탁아동에게 필요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할 계획이다.

농산물 이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정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 지원사업에서 ‘제주지역 농산품을 이용한 6차산업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에게 6차 산업 분야의 직무를 개발해, 직업훈련 기회 및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9월부터 잼 제조가공 작업, 차 제조가공 작업 등의 직업재활을 시작한다.

현대자동차제주서비스 봉사활동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 7월 30일 (주)현대자동차 제주서비스센터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도내 관광지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문화체험은 더운 날씨에도 현재자동차 제주서비스센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힘입어, 이동이 불편한 이용장애인들도 어려움 없이 관광을 즐길 수 기회를 제공 받았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해 제품 홍보



일배움터(원장 정춘진)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이틀간 칠성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주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에 참가해 청년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진열하고 판매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다수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일배움터는 청년장애인들이 만든 도자기, 화분, 청정 농산물 등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세대통합의 장 ‘작은 발표회’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는 지난 7월 28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발표회를 열었다.

참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발표회는 센터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한국무용 댄스 재능발표,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의 미용봉사, 수박화채와 떡을 대접하며 세대 간 간격을 줄이는 세대통합의 장의 기회를 마련했다.

시론

새롭게 부각되는 산림치유와 복지



한 영 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인간과 숲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인간은 숲을 떠나서는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기간 떨어져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다. 결국은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

본디 인간은 숲과 함께 생활해 왔다. 약 500만 전 년에 탄생한 인류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진화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자연과 떨어져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한 기간은 매우 짧다. 산업혁명 이후로 본다면 그 기간은 0.001%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숲이라는 자연환경에 잘 맞도록 진화해 왔다. 숲에 가면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다. 질푸른 실록을 보면 마음이 상쾌해진다. 그동안 화났던 일들은 모두 잊고

어느새 나무와 새, 들꽃과 한 마음이 된다. 아니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

이처럼 숲은 인간에게 무한한 치유의 길을 열어준다.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무리하게 썼던 지친 몸을 재충전하도록 하게 한다. 도시생활 속에서 얻은 온갖 질환들을 치유하는데 아낌없이 베푼다.

우리 몸 자연환경 맞춰진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도시생활에 묶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아토피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 이들 질환 대부분은 도시생활에서 오는 생활습관성이거나 환경성질환이다. 그래서 질환 자체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병원에서 치료하기도 쉽지 않다. 한 두 번의 약물로 고쳐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 자체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재발의 연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질환들

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산림을 중심으로 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다. 산림휴양림을 비롯해 삼림욕장을 전국 곳곳에 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산림복지 진흥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산림치유를 도입한 독일은 산림치유 비용 일부를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의가 '이 환자는 자연요법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 좋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도 숲에서의 경비를 의료보험에서 지원받고 있다.

독일, 숲치유 의료보험서 지원

이처럼 복지는 우리가 사는 사회단위를 넘어 산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숲을 통해 새로운 치유와 더불어 산림복지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제주에서도 오름 등 숲을 찾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숲이 주는 혜택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칼럼

제2, 제3의
'구부러진 길'을
보고 싶다

김 범 훈

(사)Geo-Jeju 연구소장

8월 중순 오후 9시께였다. 제주시 내 중앙성당 근처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한 뒤 아라동 집까지 걸었다. 소화도 할 겸 동네 한 바퀴처럼 쉬엄쉬엄 걸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열

대야에다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까지 도심 거리는 숨이 막히고 찌는 듯하였다. 택시를 타고 갈 걸하며 후회스러웠다. 약 10여분 정도 걸었을까. 제주KAL호텔 인근 교보생명 빌딩 앞이었다. 나의 시선은 빌딩 외벽에 내걸린 글판에 꽂혔다. 글귀가 너무 정감 어렸다. 한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감동의 주인공은 글판의 시(詩) 구절이었다.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시인의 시 ‘구부러진 길’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구부러진 길은 곡선이다. 곡선은 직선이 갖지 못하는 멈춤이 있고 완이 있다. 여유로움도 있다. 더구나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는 표현에서는 사람 냄새가 물씬했다. 시의 전문을 보고 싶었다. 이내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중략) /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중략) /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이 좋다’

시어 하나하나에 시골 골목길 정겨움이 묻어난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는 말은 각박해지는 세상에 마음을 열게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구부러진 길이 싫다며 탄탄대로로 뚫쳐나가려고 한다. 직선의 길은 삶의 호흡을 가쁘게 재촉할 뿐이다. 스스로의 여정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마른 일상을 풀어줄 따뜻한 한마디다. 삶에 지친 사람들,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위안과 격려의 한마디가 절실하다. 제2, 제3의 ‘구부러진 길’과 같은 감동의 글을 제주의 도심 곳곳에서 보고 싶다. 서울에서는 계절마다 바뀌는 ‘광화문 글판’의 글귀가 도심 속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도시는 바로 이러한 작은 울림에서 시작할 터이다.

기고

노형동에 제주 SMART 복지관(가상복지관)이 있어요



이 두 경

노형동주민센터

가상복지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관이라고 하면 2~3층의 건물에 사무실, 도서관, 프로그램실, 강당 등이 있는 이용시설이다.

하지만 가상복지관은 이러한 물리적 공간 즉, 복지관 건물을 최소화한 복지관으로서 정보시스템 및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내 복지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복지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가상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상복지관은 복지관 건물이라는 물적 공간이 없다보니 기존의 복지관처럼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자의 시간과 장소에 맞춰 현장방문, 현지에서 인적자원, 공간, 물적자원의 동원으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복지관의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영역 즉 자원봉사 및 후원개발,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화, 특화사업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자원봉사 및 후원개발 사업

으로는 자원봉사단체 연계 공동사업, 후원사업 개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이 진행된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및 복지향상을 돕게 만드는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으로는 주민육구조사,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상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노형동과 연동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인적, 물적 등의 재능기부)나 후원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모든 지역주민들은 ☎ 745-0351 번호로 문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시설탐방

(80)효사랑 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케어 집중하는 ‘우리집’ 같이 따뜻한 요양원

중증 환자 어르신 위한 1:1 맞춤형 케어 눈길

병원 · 스포츠 · 문화시설 종합 노인복지타운 목표

“사랑합니다” 효사랑 노인전문 요양원에 들어서자, 처음 들려온 인사말이다. 온기 어린 인사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따뜻한 말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힘이 들어 있는 듯하다. 요양원 구성원들이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도 이와 같았다. ‘사랑·섬김·나눔’을 모토로 하는 효사랑 노인전문요양원을 지난달 26일 찾았다.

상명복지재단(이사장 김용대)이 운영하고 있는 효사랑 노인전문요양원(원장 김은진, 이하 효사랑요양원)은 김용대 이사장의 부친인 김동우 의학박사의 뜻에 따라 지어졌다. 제주출신인 김 박사는 1971년부터 1999년까지 28년 간 부산에서 나병환자를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퇴임한다. 그 후에도, 김 박사는 제주로 내려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병원 ‘백당경로의원·경로한의원’을 운영하며, 제주지역의 노인들을 위

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용대 이사장은 이런 부친의 뜻에 따라, 2003년 재단을 설립, 2005년에는 효사랑요양원을 설립한다.

효사랑요양원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노인복지타운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타운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병원, 스포츠 센터, 문화시설 등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다.

제주 지역의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문화에 익숙해, 치매를 앓거나 외상 등의 완전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요양원을 찾곤 한다. 요양원을 호스피스의 개념으로 찾는 것이다. 효사랑 요양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 ‘케어’ 중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효사랑요양원의 자랑은 1층에 위치한 ‘집중관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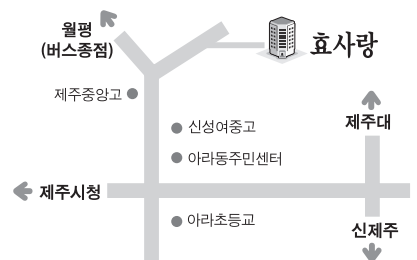
이’다. 병원으로 치면, 중환자실과 같은 이곳은 6~7인의 중증의 환자 어르신들이 케어를 받고 있다. 집중관리실에서는 환자별로 1:1 케어가 이뤄지며, 증상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에는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며, 요양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집중적 케어를 위해 직원들의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요양원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 성희롱, 인권, 낙상방지, 예절 등의 교육을 적은 시간이라도 주기적으로 열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효사랑 요양원의 시스템 가운데 눈여겨 볼 점은 보호자와의 소통 방법이다. 요양원에 어르신이 입소하면, 보호자들 가운데서 대표자를 후보보호자로 선정한다. 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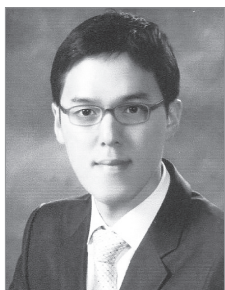
원은 후보보호자가 선정되면, 어르신들의 상태를 직접 모시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공유한다. 어르신의 몸의 상태, 문제 발생 상황 등을 계속해서 알리며,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김은진 원장은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기도 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리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씀을 전하면, 구성원 모두는 참 뿌듯해한다”며 “우리 요양원이 어르신들에게 항상 ‘우리집’으로 느껴질 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4

가정폭력 가해자는 무조건 범죄자로 처벌될까?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다.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가해자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가정이라는 특수

성으로 인해 우리 법에서는 ‘가정보호’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 하루 10건 경찰에 도움 요청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혼관계나 양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다루어 지는데,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사건은 3300여 건으로 하루 10건 꼴로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 입건된 가해자는

803명이지만 이중 형사 처벌된 사람은 324명이고 나머지 479명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절반 이상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특별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가정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를 단순히 처벌만 할 경우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부인을 때린 남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치료, 상담소의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폭력의 재발을 막고 온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된다.

◆ 8가지로 구분되는 ‘가정보호’

가정보호재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나 경미한 폭행일 경우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담당 법원은 심리를 거쳐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과하는데, 보호처

분은 8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8가지 보호처분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의 접근금지, 전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통신금지, 친권자의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 의료기관의 치료, 상담소의 상담이 있다.

가정보호재판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폭력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폭력이 일어난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세 70년, 특별자치도 10년, 사회복지협의회 30년

제주복지, 도민의 삶에 날개를 달다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6사회복지가족'단체줄넘기'대회

기념식 : 2016.9.8(목) 10:30 ~ 12:00(기념식 11:00),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단체줄넘기대회 : 2016.9.8(목) 13:00 ~ 16:00,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참여단체 (가나다순)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중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한국장애인복지자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회,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호남지부제주지회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후원 :  제주은행  더위망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